

2024. 5. 28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 :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

재난안전예방과장

강남태

02-2133-8515

재난예방팀장

최인성

02-2133-8517

사진 없음

사진 있음

쪽수 : 4쪽

관련 누리집
(서울안전누리)

<https://safecity.seoul.go.kr>
(재난안전시설 → 대피소 → 기후동행쉼터 선택)

편의점에 이어 은행까지, 올여름 기후동행쉼터 250여곳 운영... 땀띠 더위 피하세요

- 서울시, 기후동행쉼터 확대... 신한은행 전지점(197곳), 편의점 총 58곳 등 총 255곳
- 은행입구에 기후동행쉼터 현판 부착, 시민들의 심리적 거리감 줄이고 이용 편의 높여
- 27일(월) 서울시-신한은행 업무협약...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 위한 상호 협력 약속
- 기업·기관과 지속적 협의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... 관공서 등 활용한 무더위쉼터도 운영중

- 한여름 에어컨 바람을 쐬며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‘기후동행쉼터’가 서울 소재 41개 편의점(씨유(CU), 지에스(GS)25) 이어 신한은행 200여 개 지점으로 확대된다. 5월 말 편의점 17곳에 추가되면 올여름 총 255개의 기후동행쉼터가 운영되는 셈이다.
- 서울시가 폭염·한파 등 각종 기후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편하게 방문해 더위와 추위를 피하며 쉴 수 있는 ‘기후동행쉼터’를 서울 시내 신한은행 전 지점(197개)으로 확대·운영한다고 밝혔다.
- 앞서 지난 2월 시는 CU, GS25와 업무협약을 맺고,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점주의 편의점 총 41곳을 기후동행쉼터로 1차 지정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. 추가 협의 후 5월 말까지 편의점 5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.

- 기존에도 여름철엔 은행 등에서 더위를 피하는 시민들이 간혹 있었지만 심리적 불편함과 직원들의 시선 등을 걱정해 맘 편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. 이번에 공식적으로 신한은행 전 지점이 ‘기후동행쉼터’로 지정·운영되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은행 입구에 ‘기후동행쉼터’ 현판을 부착해 시민들의 이용을 돕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.

<27일(월) 서울시-신한은행 업무협약...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 위한 상호 협력 약속>

- 이를 위해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27일(월) 오후 4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「서울시 기후동행쉼터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(MOU)」을 체결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한다.
- 협약식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,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다.
- ※ 서울안전누리(<https://safecity.seoul.go.kr>)에서 위치 등 확인 가능

- 시는 접근성 좋은 ‘기후동행쉼터’ 확대를 위해 신한은행에 참여를 제안했고, 신한은행은 재난약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취지에 공감하며 흔쾌히 동참을 결정했다.

<기업·기관과 지속적 협의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... 관공서 등 활용한 무더위쉼터도 운영중>

- 현재 운영 중인 은행과 편의점을 활용한 ‘기후동행쉼터’ 외에도 기업, 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후에 특히 취약한 재난 약자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‘기후동행쉼터’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.

- 시는 각종 시 공식 홍보매체와 SNS 등을 활용해 참여기업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, 우수 사례에 대한 시장 표창을 통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.
- 한편 서울시는 ‘기후동행쉼터’ 외에도 복지관·경로당·관공서·도서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개방 중이며, 일부 쉼터는 폭염특보 발령시 심야 21시까지 연장해 운영한다. 가까운 무더위 쉼터의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은 서울안전누리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. 또한, 지역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야간쉼터인 안전숙소도 운영한다.
-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은 “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영업점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, 앞으로도 서울시의 금고지기로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‘약자와의 동행’에도 적극 협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“각종 서울 시책의 우군이 되어준 신한은행과 기후재난 예방 분야까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뜻깊고, 기후동행 쉼터의 가치도 높아졌다”라며 “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합심한 두 기관의 협력을 토대로 서울의 기후재난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○ 협약식 사진 및 현판 이미지



○ 현판 사진

